

# 프랑스공산당(PCF)과 인민계급

줄리앙 미시(Julian Mischi)<sup>1)</sup> | 파리고등정치대학(Science Po) 전임교수

<차례>

1. 프랑스 노동계급 형성과 PCF
2. '노동계급정당'의 이미지 깨기
3. 전통적 산업노동의 위기
4. PCF에 대한 인민계급의 거리두기, 그 정치적 조건
5. 최근 PCF의 탈노동자화

20세기를 관통하는 사회정치적 논의에서 특히 이념, 정치, 예술, 과학 등 여러분야에 전망을 제시했던 맑스주의의 영향 아래 '노동계급'은 공적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표명되어온 자신의 '종말'문제와 연계된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노동계급'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물론 일부측면에서 노동자의 결집이 약화되고 있지만 노동계는 단순히 소멸된다기보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재구성과정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우선 지난세기 '노동계급'은 마치 이념적 낙인이나 정치적 깃발처럼, 특히 인민전선이나 68혁명 등 사회운동의 중심에 자리할 때 불법화되었기 때문이다.

대중적 논의에서 노동계급이 후퇴하고 위축된 것은 PCF(프랑스공산당)과 CGT(노동총연맹) 등 노동계를 대표하는 조직이 쇠퇴하고 변질된 데 있다. 또한 이 조직들이 대중의 시야에 노동계를 노출하고 환기한 만큼이나 노동계의 다양성을 균일화하는 데 기여한 것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이에 필자는 PCF와 인민계급 간의 관계를 장기적(역사적) 관점과 총괄적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는 PCF로 결집되는 모든 인민계급들을 대상으로 한다. 과거 PCF의 대중지반은 노동자들에게만 귀속되지 않았으며, 최근 이르러 프랑스통계청(INSEE)의 사회직능별 범주로서의 '노동자'의 개념이 서비스군에 속하는 일부 직종(운송업, 물자보급·지원체제 등)으로 너무 한정적인 의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민계급과 PCF의 관계와 관련해 유권자의 지지변화와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무엇보다 사회적 논의 내에서 직업군의 적합한 위치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PCF 내에서 인민계급의 상징적이고 실용적인 위치를 정립하기 위해 다양한 역사를 가진 네개의 공산연맹(Allier, Isère, Loire-Atlantique, Meurthe-et-Moselle)<sup>3)</sup>에 대한 연구에 기반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공산주의적 행동주의와 인민사회를 너무 자주 자동적으로 연결시키는 통상적인 이미지를 깨는 데 동참하고자 한다.

1) 프랑스국립농학연구소-사회경제센터(INRA-CESAER) 사회학연구원

2) J. Misch & N. Renahy, Encyclopaedia Universalis 2007년판의 「노동계급」 항목 참고

3) 필자는 1990년대 초 Robert Hue에 의해 추진된 PCF 자료개방정책 덕을 많이 보았다. 이에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 1. 프랑스 노동계급 형성과 PCF

프랑스 노동운동은 역사적으로 독일과 영국에 비해 취약했고 뒤늦게 조직됐다. 프랑스는 도시의 수공업자, 소상공인, 자작농 등의 소자산계급, 특히 자작농들이 오랜기간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으며, 그들 대부분은 도시와 공업 중심지로 노동자가 집중되는 산업화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 인해 프랑스의 노동계급은 더디고 불완전하게 형성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농촌과 수공업사회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sup>4)</sup> 몇십년간의 혼란, 불안정, 강제이주 후에 프롤레타리아를 기계제생산공장과 대도시로 집중시킨 것은 바로 1930년대 대공황이었다. 즉 2차산업혁명(1900-1930)의 결과, 두번의 세계대전 사이에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가 등장한 것이다.

1950~1970년 프랑스 노동계급은 계급형성의 정점을 이루며 성장한다. 당시 노동계급의 힘은 테일러식 산업의 한 가운데서 발현한다. 실제로 노동자들은 테일러시스템의 비교적 동일한 노동의 계급적 체험에 의해 결집한다. 이러한 산업세대의 삶과 노동조건은 -사회적으로 동일한 경향, 중심집단 존재, 다른 사회집단에 대한 자치권, 현지정착, 가치전달의 노동자적 경로 -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유리한 계급문화를 만들어낸다.

20세기초중반 산업모델과 연계되어 프랑상공산당의 인적기반은 도시문화를 지니지 못하고 농촌으로부터 이주해온 새로운 노동자로부터 출현한다. 산업화로 새로이 중심지가 된 대도시주변이나 산업화된 농촌지역에서 공산주의운동세력이 구축된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전투적 태도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결합시키고, 금속계열 노동집단이 중심역할을 하는 기업 - 철강, 제철, 기계, 조선, 화학제조, 항공제조, 자동차제조 - 에서 전개된다. 1936년 대파업운동은 이 노동자계급에서 나온 지도층(소위 '전위')의 출현을 상징한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이 엘리트층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특히 CGT와 PCF 중심의 노동조합과 정치조직의 통일을 꿈꾼다. 그러나 현실은 남과 여, 프랑스인과 이민자, 숙련노동자와 전문기술자, 지방노동자와 도시노동자 등으로 분열된다.

이런 식의 인민계층에 대한 공산주의식 관리시스템은 매우 특별한 것인데, SFIO(제2인터내셔널 프랑스지부)에 비해 PCF는 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주목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특히 석탄공업과 금속공업 노동자<sup>5)</sup> 등에게 산업프롤레타리아대군으로서의 지위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이들 핵심활동가의 당간부 진출<sup>6)</sup>에 기반해 결집한다. 또한 새로운 혁명조직은 다양한 학교를 통해 '프롤레타리아적 요소' 형성을 위한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는 지식인이나 농민 등 다른 계층에 대한 지도적 의미와 더불어 당의 간부들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주의 착취에 대면한 공장은 당의 투사를 단련하고 육성하는 학교다'라는 말은 계속 언급되어온 명제이다. 그리하여 연합노선을 형성하기 위해 지방의 책임자들은 육체노동자의 지위향상을 촉구하는 지침을 통해 움직인다. 이때 PCF는 'Allier'처럼 농촌지역을 포함하는 노동자의 당으로 출현한다.<sup>7)</sup> 193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우리의 연구대상인 4개 공산연맹의 연방사무국은 노동자 혹은 노동자출신 당원이 거의 독점적으로 장악한다. 'Meurthe-et-Moselle'에서 1950년대말 선출된 산업설계사 1인과 교사 1인을 제외하면 1944~1979년 연방사무국은 모두 노동계급 출신이다. 노동자세력은 당의 위계질서와 함께 강화된다. 연방의 부서와 사무국은 연방위원회보다 더 친노동자성향이다. 1962년 노동자출신 활동가는 루아흐-아틀랑티크지역 PCF 연방위원회의 53%, 연방부서와 연방사무국 전체의 60%를 형성한다.

4) Gérard Noiriel의 작업, 그 중에서 특히 『프랑스사회의 노동자.19-20세기』(Seuil, 2002년 재판)에 의거한다.

5) M. Lazar, 「대지의 저주와 냉혹한 인간. 30년대에서 50년대말 PCF의 상상 속 노동자」, Annales ESC, 1990년 9-10월호, 1071-1096쪽.

6) B. Pudal, 『당과 정하기. PCF의 역사적 사회학을 위하여』(PFNSP, 1989).

7) J. Mischi, 「농촌사회에서의 노동당」, 농촌연구 2004년 12월호, 135-146쪽.

## 2. '노동계급정당'의 이미지 깨기

PCF는 프랑스정계에서 최근의 어느 시점까지 '노동계급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으며, 중앙 조직이나 인적조직(노동조합, 단체 등)은 물론 공공기관(시청, 이사회 등)에서도 책임직을 맡는 노동자엘리트층을 키워냈다. 인민계급의 정치적 성장이라는 PCF의 성공은 PCF와 노동계급의 힘이 결합된 '붉은보루'로서 요약된다. 정당의 '붉은기반'이라는 이미지 앞에서 운동사회와 인민사회의 인적지반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연구에 도움이 된다. 이는 인민계급의 사회적 실천을 당의 조직적 결집이라는 단순한 형태로 축소해 보지 않기 위해서다. 당의 정치의식 조직화와 인민의 사회적 실천을 분석하고 구분함으로써 이 두 양상의 상호영향에 대해 강조하는 수단이 주어진다. 한편 당은 당발전을 주도하는 사회계급으로부터 계승되고 공산주의로의 의식화, 조직화가 인민문화를 일군다.<sup>8)</sup>

인민사회에서의 행동주의적 실천을 자세히 조사해보면, 농민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노동자정당으로서의 지배적인 이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sup>9)</sup> 부호보네(Bourbonnais)지방과 같은 농촌지역에서 공산주의가 강성한 것은 맑스-레닌주의와 비교적 거리가 있는 사실로서, 이는 농촌 고유의 공산주의 상징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기초한다. 농촌에서 공산당은 농업생산노동자뿐 아니라 소규모자작농과도 관계한다. 이는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와 사적 소유폐지라는 금기시된 화제를 물리치는, 농민의 사회계급적 처지에 토대한 실용주의의 증거가 된다. '대지는 일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에 기반한 공산주의적 토지분배는 사실상 사회주의(집산주의)적이지 않다. 공산주의는 무상물수무상분배의 원칙하에 토지를 재분배하고 생산수단의 협동적 소유를 발전시켜 사회적 소유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호보네지방 소농의 공산주의 지지는 맑스주의원칙의 적용이나 토지의 사회적 소유에 대한 지지를 의미하지 않는다. 공산당의 농촌 당원들은 가족협업의 개인경리를 운영하는 소작농의 수호자였다. 그들은 무엇보다 농민을 농업자본가의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 요구사항을 주창한다. 그들이 전제한 구호는 '부자에 반(反)하는 약자'이다.

'인민의 아들'의 전형인 모리스 토레즈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PCF의 구호는 농촌 등지에서 특별한 호소력을 지니며, 발텍 로쉐는 '대지의 아들'로 추대된다.<sup>10)</sup> 다른 한편 농촌사회에서 당원의 지위변화는 노동계급화에 대한 가치부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즉 실제 노동의 정도와 선전물의 노출순위에서 가늠할 수 있는 '사회적 순수'의 원칙에 의거한다. 이런 식으로 당원의 지위변화는 농업생산노동자를 우선하며, 소작인(농업생산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경영자(그들 중에서도 농업생산노동자를 가장 적게 소유한)의 순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노동계급 중심의 공산주의는 농촌에서 방향을 전환한다.

노동자 계급역량과 PCF 인적지반을 연결시키는 또 하나의 지배적 이미지는 공산당의 인적 지반이 불안정한 인민사회, 특히 2차산업혁명시기 위기에 처한 공장에서 구축됐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뢰히트-에-모젤지역 공산주의 역량은 빼이-오지역 산업화의 절정이 아닌 쇠퇴에 상응한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PCF는 1950년대와 1960년대 폐광지역에 이어, 1960년대말 공장실업자가 양산된 시기 인구밀집지역에 정착된다. 이러한 영향력은 경기쇠퇴에 따른 것이다. 노동자밀집지역에서 사회적 정체성의 매개체인 공장이 쇠퇴할 때 공산주의자들이 힘을 얻는 것은 드물지 않게 발견된다. 노동자들의 공산주의 지지는 위기에 처한 산업화시대를 존속시키려는 상징처럼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로렌지역 공산당의 뒤늦은, 그러나 전격적인 성공은 위기의 최고조에 있던 빼이-오지역 산업의 수호

8) J. Mischi의 논문 「당원의 노동과 인민의 사회성 : 공산주의의 정치화에 대한 국지적 관찰」 (Politix 2003년 63호, 91-110쪽)에서 위 내용에서의 공산주의의 정치화 관련 접근을 정당화할 수 있다.

9) 특별히 두 개의 저서가 이 농촌 공산주의를 조명한다. R.-M., Lagrave가 감수한 「프랑스농촌에서의 '작은 러시아」 (농촌연구 2004년 12월호), Laird Boswell의 「프랑스의 농촌공산주의. 1920년에서 1939년까지의 리무진과 도르도뉴」 (Limoges 대학출판부, 2006).

10) J. Vigreux, <Waldeck Rochet 정치적 전기> (La Dispute, 2000).

와 함께 노동계급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농촌의 도전과 유권자의 결집은 ‘철강업의 국영화’라는 이름으로 실시된다. 철강업은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중심부로, 공산당 출마자들은 철강산업지역 출신이다. 1977년 몽-생-마르탱 좌파연합 27명에 대해 공산주의 선전물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철강산업 종사자 13명 : 노동자 6명, 여직원 1명, 회계원 1명, 기술자 2명, 제도사 2명, 직공 1명.’ PCF는 당의 구호와 열성당원(지도자 및 당선자)을 통해 사회적 토대를 소실하면서까지 철강업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몽-생-마르탱공장의 공산주의자들은 제조업노동자들이 경제적 침체를 겪기 시작하는 1977년 시청에 입성한다.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표는 철강업에 대한 지지와 연결된다. 즉 철강업국영화를 지지하는 표심에 의해 철강산업 수호의 표명으로서 나타난다.

당과 노동집단의 역량관계를 일반적으로 가정해 볼 때(토레즈시대 당의 역량은 노동계급의 상승하는 힘이며, 당의 약화는 노동계급이 재생산되지 못하는 위기의 반영일 것이다) 공산주의는 항상 주요산업에서 노동자들이 성장하는 흐름에 의해서만 등장하진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다. 공산주의는 특정분야 또는 특정 지역사회의 약화에 힘입어 자라난다. 한편 이에 대한 너무 포괄적인 접근은 때로 인민사회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자동결부시킨다.

### 3. 전통적 산업노동의 위기

다음으로 PCF의 쇠퇴를 살펴본다. PCF의 쇠퇴를 파악하려면 공산주의조직에 내재하는 변화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공산주의조직이 인민사회에 미친 제반 변화를 우선으로 공산주의 위기의 사회적 조건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PCF 약화는 사실상 프랑스 노동운동의 전반적 위기에서 나타난다. 지속되는 고용불안과 대량실업, 경제상황의 급전환으로 1970년대 사회투쟁은 방향을 수정하게 된다. 파업횟수가 줄어든 것은 물론, 직업재훈련과 예비운전자관련 절차, 임시직 확대 등 경제적 변화는 노동자결집의 성격을 변화시킨다. 노동조합문화와 기업문화의 전통적인 대비가 줄어들고, 조합원들은 점차 관리직의 논리에 통합된다. 공산주의가 후퇴되기 이전, 이미 영향력이 줄어든 CGT와 경쟁관계인 CFDT(프랑스민주노동동맹) 등의 대안적 노동조합활동이 출현한다. 수치적으로는 프랑스 노동계급의 정점이었던 1976년까지 투쟁은 계속되고 사회적 장악을 위한 공격적인 전략이 취해졌다. 이후 탈산업화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탈퇴가 이어진다.<sup>11)</sup> 노동자들은 기업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잃고, 이로 인해 노동계급의 투쟁적 가치가 해체된다. 노동자들은 산업시설의 결정권을 쥐 본부로부터 멀어지며(자본의 집중과 국제화), 정부의 개입증가로 현지공장에서의 사회운동 효율성이 약화된다.

CGT와 마찬가지로 PCF 역시 공산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독특한 노동자세대’(제하흐 누아리엘의 표현)의 사회문화적 계승을 저해하는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는다.<sup>12)</sup> 노동자와 관리자 간의 관계를 주도했던 노동자대표는 더 이상 이러한 문화를 선도하지 못한다.<sup>13)</sup> 전통적으로 노동조합과 당의 간부였던 사회투쟁경험이 많은 나이든 숙련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중심적 위치를 잃고, 이러한 위치는 공장직원에게 돌아간다. 즉 공장은 ‘숙련노동의 생산’에서 ‘기계제생산에 대한 관리’로 그 중심이 변화되면서 전통적인 산업직(조립공, 설치공, 철판공)의 소멸이 초래된다. 노동투쟁의 핵심으로 위치했던 이들 직업군은 기계의 설비, 유지보수에 필요한 특수정비공으로 대체된다.

11) J. Capdevielle et R. Mouriaux, 「프랑스 파업의 정치적 접근」(1966-1988), Cahiers du CEVIPOF 1988년 3호

12) 농촌에서 PCF는 전통적인 농민의 쇠퇴를 겪는다. P. Champagne의 『거부된 유산 : 1950-2000년의 프랑스농민의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Seuil, 2002)를 볼 것

13) 피에르 부르디유가 감수한 『세계의 비참』(Points-Le Seuil, 1993)에서 M. Pialoux 저작 「의원(대표자)의 혼란」을 볼 것

게다가 직업교육은 더이상 노동공동체(수습센터, 기업의 직업학교, 노동조합) 내부의 인적조직을 통해서 실시되지 않는다. 직업교육은 공장안 노동자가 아닌 다목적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공장밖 직업교육을 통해 실시되며 이 교육은 점차 일반교육의 교과서적 규범에 동조된다. 공장안 직업교육은 노동자의 관할하에 남아있었지만 특히 중등기술교육학교 등에서 노동자 출신 교육자는 점점 줄어든다. 이제 선참자가 젊은이들을 양성하던 긴 도제수업보다 학위가 우위를 차지한다. 학교교육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계급이 내재한 사회화 과정이 아닌 학교를 통해 노동계에 진입하게 된다. 점점 학교교육에 실패한 이들이 노동자가 된다. 기술직노동자나 직업고등학교로 진입하는 것은 긴 과정의 중등교육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렇게 노동계에 진입하는 과정은 제도권교육과 노동자 내부에 의한 가치절하와 관련된다.<sup>14)</sup>

이러한 사회경제적 급변은 노동투쟁에 근거한 노동계급문화 계승에 반하는 것이다.<sup>15)</sup> 노동투쟁은 가장 오래된 노동계급의 계파내에서, 노동계급의 자생능력이 길러진 공장에서, 말하자면 이제는 계승할 이가 없는 산업세계에 특히 강력한 힘을 발휘했었다.<sup>16)</sup>

두가지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이 노동계급문화를 의문시하는 데 동참한다. 하나는 상층노동계급의 개인적(전문적) 승진과 혈족중심(소유권상속, 자녀교육)의 지위상승이 이뤄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층주변부 노동계급의 삶과 노동조건에 불안정화이다.<sup>17)</sup> 상층노동계급은 비껴나가는 빈곤화 등이 두과정이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PCF를 약화시켰다. 과거 숙련노동자 중심의 비교적 동일한 노동자의 사회계급적 처지가 공산주의 역량의 조건이었던 것이다. 고용정책은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임시노동자로 나누어놓았다. 고용정책은 노동사회 상하층에 걸쳐 모든 종류의 노동직을 등장시키고, 수많은 전문직을 양산함으로써 과거 노동계급 정체성에 벗어난 노동조건 분열에 힘을 실어주었다. 점점 더 많은 노동자가 3차산업(운전기사, 배달원, 창고관리, 용역서비스업 등)에서 개별적으로 일하면서 관리직화된다. 서비스노동자나 장인기술을 보유한 노동자들이 차츰 중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대체하게 된다.<sup>18)</sup> 현존하는 노동계급은 광부나 제련공과 같은 전통적 이미지로부터 멀어진다.

#### 4. PCF에 대한 인민계급의 거리두기, 그 정치적 조건

노동사회에서 공산주의적 행동주의가 고갈되는 사회적 조건이 탄생한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인민계급 결집을 위한 공산주의적 계획에 의한 것이며 이 계획의 재생산 위기와 관련된다는 정치적 폭로를 피해서는 안된다. 인민계급의 재구성과정에서 진행된 PCF의 탈노동자화는 수동적으로 당원구성체계에 적응된 단순한 사회적 과정이 아니다. 이는 공산주의조직에 내재한 변화와 관련된 정치적 현상을 반영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당의 인사와 이념적 발언에 영향을 미친 변화를 통해 이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 매우 간략하게 동시대 공산주의 활동영역의 주요한 사회학적 변화를 짚고 넘어가자. 또한 이 변화가 활동체제나 활동지반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 변동에 의한 수동적 변화인지 아니면 조직적 결정에 의해 단행된 능동적 변화인지를 항상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자.

1970년대 공산주의진영은 서비스직, 기술자, 교육자의 가입증가로 인해 노동계급 외부성원에게 많이 개방된

14) S. Beaud & M. Pialoux의 모범적 연구인 「노동조건의 회고. Sochaux-Monbéliard 지역의 푸조 공장 조사」(Fayard, 1999)를 볼 것.

15) 이른바 '노동자문화정책'이란 것에 영향을 미친 단절에 대해서는 G. Michelat와 M. Simon의 「노동자와 정치. 지속, 단절, 재조정」(Sciences Po 출판부, 2004)을 볼 것.

16) J.-P. Molinari, 「공산주의 노동자들. 노동자들의 PCF 지지의 사회학」(L'Harmattan, 1996).

17) 노동계급의 이러한 분열은 J.-P. Terrail의 「노동자의 운명. 계급의 종말?」(PUF, 1990)에 잘 나와 있다.

18) 특히 E. Maurin의 「가능성들의 평등. 새로운 프랑스사회」(Seuil, 2002)를 볼 것.

다. 본부의 추천에 따라 이러한 사회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1972년 서명된 공동강령의 연장선상에서, 전국적 방침이 실제적으로 당원구성의 쇄신을 촉구한다. PCF에서 활동영역의 방침은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좌파연합의 정치적 관점은 중산층, 기술자, 전문기술자, 간부들에게 노동계급정당을 개방하고 동참하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변화과정이 특수성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기업의 기본단위는 본질적으로 노동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공장에 기술자, 관리직, 제도사, 기술전문가, 현장감독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말이다. PCF의 비노동자범주는 주로 산업분야 외 종사자들이며, 이들은 1차적으로 현지공장을 둘러싸고 있는 셈이다. 다음으로 비노동자출신의 당가입이 증가하더라도, 이들은 당지도부에 많이 오른 교사(본질적으로 인민계급출신)를 제외하면 실질 당원수에 비해 극소수만이 지도부에 도달한다는 사실이다. 만약 이러한 중산층 구성원이 연방위원회에 많이 위치한다면 연방사무국에는 적게 할당함으로써 노동자출신 당원의 지도적 위치를 보장하는 것이다.

1970년대말 당 내부적 승진의 사회적 방침에 대해 본부 지침이 변화한다. 1977년 공동강령의 단절과 더불어 정치노선의 강화는 실제적으로 당원모집전략의 선회와 행동주의진영의 과도한 혁신을 경계하는 형태를 띤다. 1977년 5월 7일 연방간부총책임자 모임에서 가스통 플리소니에는 정치적 전환점을 사회적으로 예고한다. 그는 “당내 지위상승을 위해 노동계급을 향해 단호하게 도전하는 것은 제1지령의 문제로 남아있다”고 평가하면서 “당의 사회적 구성은 노동계급의 당성에 의거한다”는 PCF의 조직원칙을 천명한다. 당의 과도한 인적 쇄신에 대한 비판과 ‘노동자중심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드러난다. “최근 대도시의 당방침에서 ‘쇄신하기 위한 쇄신’, 경험 많은 노동자간부를 학생, 지방공무원, 문화계인사 등 젊은이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급격히 일고 있다.” PCF의 위계질서에서 노동자들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문제가 다시 표명됐다. 가스통 플리소니에 의하면 “노동계급의 본질적인 역할, 모든 당활동과 당조직에 있어 노동계급의 결정적 역할, 모든 방침에서 노동자간부들이 필수불가결함을 주창해야 한다.”<sup>19)</sup> 노동자들은 PCF 지방조직에서 요직을, 특히 교사들의 과도한 당적 지위상승으로 인해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조직 상층부에서 완고해진 이른바 ‘노동자대표자’라는 이들의 궤적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실제로는 이 ‘노동자중심주의’ 발언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당간부들은 여전히 인민계급 출신이지만, 당의 외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점점 더 활동을 하지 않았다. JC(청년공산주의운동)와 CGT의 대변인으로서 당간부들은 부모의 영향으로 매우 일찍 당체제에 편입되거나 직업교육의 영향으로 노동계급과는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관료주의의 낙인으로 된 당간부수의 폭발이 PCF 쇠퇴의 시초가 된다. 1970년대초 500명이었던 당간부는 1970년대말 1000명에 이른다. 레지스탕스와 냉전을 겪은 투쟁세대 이후 사회투쟁시기 태어나 1970년대말부터 당간부로 활동한 이들은 노동자인적 없는 노동자중심주의자이며 사회적 신분상승과 공장폐업으로 인해 공장에서 오래 일해보지 못한 전문자격증 소지자이다. 또한 이러한 공산주의운동가의 제도권 편입은 지방의회선거 승리에 기인한 금전적 이득증가와 관련된다. 여기에는 당활동의 중요부분을 담당하는 PCF의 지방자치단체 당선자들과 수많은 직원, 엄밀한 의미에서의 당소속 공무원까지 가세한다. 당간부와 행동하는 인민의 표면적 관계는 이렇게 축소된다. 점점 당의 전투적 태도는 고유의 합리성과 인민사회의 구체적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일반적 구호를 채택해 전문직업화된다. 당간부의 인적 기반인 지방 지도자들이 선택하는 학제는 전문고등학교보다는 일반교육을 담당하는 고등학교로 옮겨가고, 상당수가 연방 지도부에 진출하기 전에 이미 정치전문가(국회보좌관, 시청서기관, 공무원)이다.

PCF의 탈노동자화는 당체제뿐 아니라 공산주의담론에도 타격을 준다. 1970년대말 사회적 참상을 묘사한 발언이 등장한다. 1977년 『빈곤의 수첩』 작성에 이어 PCF는 더 이상 ‘노동계급당’이 아닌 ‘빈민과 최하위임금노

19) G. Plissonnier의 PCF 사서함보고서, 1978년 11월 22일.

동자를 대변하는 경향을 띤다. 1936년 대파업운동과 프랑스해방시기 투쟁하는 영웅적인 노동계급이 지나간 뒤, '사회소외계층이자 임시직임금노동자' 집단에 속하는 피착취자의 환상적 이미지가 생겨난다. 당원이 노동자사회에서 떨어진 비극을 묘사하는 발언은 최근 당에 가입한 중산층계급은 물론, 이제는 당에서 가치가 희미해진 노동자 운동가들과도 거리를 둔다. PCF에서 인민계급이 이탈한 것은 노동계에서 가장 숙련된 분과의 문화적 열망을 무시하는 이러한 방침과 연결될 수 있다.<sup>20)</sup> '노동자중심주의'의 방침이 현실과는 괴리되게 진행되면서 운동가들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또한 이러한 혼란만큼이나 좌파연합에서는 기술자와 간부로 확대된 새로운 노동계급을 찬양하는 획기적인 방침으로 간주되었다.

## 5. 최근 PCF의 탈노동자화

장기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 당원들의 사회계급적 출신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1970년대 이래 노동활동가들의 후퇴 움직임을 서술한다. 현재 PCF 당원중 1979년 46.5%를 차지했던 노동자들은 1997년 31.3%에 불과하다.<sup>21)</sup> 전국회의에서 노동자출신 대표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1970년 이후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1980년대에는 40% 이하로 떨어지며 1990년대에는 30%를 밑돈다. 2002년 10월 21차회의 대표자 가운데 노동자는 10.6%에 불과하다.<sup>22)</sup> 따라서 1990년대부터 연방체제의 지도부를 포함하여, 당의 탈노동자화 경향은 더이상 억제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지방에 묻혀있던 중산층 임금노동자 당원(교사, 3차산업 관리자 및 수행자, 사원)은 노동자출신 운동가들이 나간 지도부 공석을 차지한다. 인민계급 성원이 대부분 당의 하부조직에 머물러 있을 때, 고급학위를 소지한 중상위층은 당원 승진에서 우선순위가 된다.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후퇴는 특히 당의 지방 지도부를 차지하고 있는 비육체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 그리하여 1994년 루아르-아틀랑티크에서 선출된 PCF 연방위원회는 공공서비스분야 임금노동자가 60%를 차지하며, 육체노동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공공서비스직에 유리하게 작용한 당의 위계질서에서, 탈프롤레타리아화는 지방단위에서 유리한 실제적인 운동가(운동계에서 구역은 이제 공장의 결집을 능가한다) 배치는 물론, 전문적인 단위의 사회학적 구성변화에도 작용한다. 노동자들은 점차 지방공동체와 교육부 공무원보다 적어진다. 이들은 노동계에서 PCF에 진출한 최근의 지도자로서 당내 고속지위상승을 체험한다.

적어도 다음 사항을 짚고 넘어가보자. 사회학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공산주의조직은 항상 인민세력이 강력했다는 점에서 부각되었다. 오랜 기간 발휘된 이 사회학은 실제적으로 집단분류의 무기력에 직면해 있다. 공장노동자의 몰락과 서비스종사자의 증가는 당의 '부르주아화'를 뜻하진 않지만, 인민계급의 사회적 재분배 결과를 불러왔다. 탈노동자화는 사회학적 변화를 겨우 고려한, 거의 변화하지 않는 척도를 도구삼아 강조된다. 예를 들면, 어떤 의미에서의 '서비스직노동자'인 서비스업종사자들은 다른 노동과 떼어놓고 보기 어려운 다른 노동자들과 사회적으로 긴밀한 업무를 맡고 있다. 서비스업종사자나 산업기술자는 동시대 새로운 인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더 폭넓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이런 분류에도 불구하고, PCF에 내재한 움직임은 운동조직을 벗어나 현재의 역량과 학제적 자원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정당에서 교육계의 승진은 당의 사회학적 격변인 동시에 당의 규범적 능력 상실을 나타낸다. PCF 중심부는 당내 지위상승이 지극히 까다롭다는 점과 당원구성비 통계에 근거해 교육계가 당지도부에 너무 많이 배치된 점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런데 이제 PCF 중심부는 점차 대표자선출을 사회적으로 선도하는 능력을 잃어간다. 당의 위계질서에 더 높이 오를수록 예

20) 이 열망에 대해서는 Olivier Schwartz가 1980년대초 북부 영구임대아파트지역 노동자가족들에 대해 연구한 역작인 「북부지역 남녀노동자들의 사적 세계」(PUF, 1990)를 참고할 것

21) F. Platone & J. Ranger, 「1997년 프랑스로산당원」, Cahiers du CEVIPOF, 2000년 3월, 19쪽.

22) 2001년 10월 제30차회의 위임위원회 보고서.

전에는 당의 추천이 당의 중간계층까지 오르는 데 필요했는데 이제는 교사의 존재가 더 중요해진다. 1980년대초 교사들이 반체제적이었다고 해도, 10년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후의 현역 운동가들이 된다. 교육계 당간부는 스스로 변했는데 많은 공산주의 교사들이 앞으로는 더이상 노동자나 농민의 아들이 아니라 교사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PCF 지방조직은 중산층 임금노동자, 특히 교육계 비약에 힘입은 PCF의 사회학적 제반면화에 따른다는 것을 언급해두자. 그러나 이 변화는 도시에 비해 느리고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알리에지방에서 공공부문 임금노동자들은 지역에서 점점 감소하는 장인과 상인을 대체하면서 공산주의의 새로운 지도층을 구성한다. 이 신흥 사회계층에 의해 정치적 구호도 변한다. ‘부자에 반하는 약자’와 ‘소규모 농지의 수호’ 이후, PCF는 1970년대부터 쇠퇴하는 농촌과 은퇴한 농업종사자들의 보호자로서 나타난다. 이런 이미지에 기반해 당활동가와 당선자들은 우체국, 기차역, 학교 등 지방의 공공서비스 수호를 위한 투쟁을 진행한다.

PCF 내부의 학위소지자와 행정능력보유자에 대한 가치평가에 의하면 선출자와 지도자들은 주로 행정직 당간부들이다.<sup>23)</sup> 지방공무원들이 공공단체에서 점점 더 많이 선출되는 것처럼, 공산주의 대표자들은 당의 재정난에 의해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점점 지도력을 잃는다. PCF 관련 노조와 단체 등 인적지반이 쇠퇴함에 따라, 당지방조직의 당원들은 공공단체와 해당직에서 철수하기에 이른다. 이들 단체와 직책의 정당성은 당중심성보다는 제도권 학제나 전문직종에서 습득한 제반 행정능력에 의거한다.<sup>24)</sup>

1990년대 소위 ‘변화’의 담론은 공산주의문화에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약화를 수반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인들’과의 연합을 목표로 하는, ‘프랑스인민의 절대다수’와 ‘다수인민의 새로운 결집’이라는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인상을 반영한 당’을 향한 공산당의 열망을 동반하게 된다. 이제 PCF는 특정계급을 위한 당이 아니라 다양성과 총체성 안에서 새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당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PCF는 노동자중심의 계급적 특성을 잃게 된다. 이러한 당조직의 담론변화는 자본주의착취에 대한 유한투쟁을 넘어서기 위해 사회적 계층과 무관한 개인의 권리를 발견하고 민주주의투쟁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sup>25)</sup> 그리하여 PCF의 정체성 재편의 중심개념인 ‘휴머니즘의 선택’이 맑스-레닌주의의 뒤를 잇는다. 즉, 사회소속과 별개로 유일무이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이제 공산주의 해방노선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PCF의 약화는 당원체계의 탈노동계급화 흐름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당원체제는 1920년대 만들어진, 조직내부에서의 노동자해게모니에 관한 공산주의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PCF에 대한 인민계급의 거리두기는 단지 인민계급의 집단적 결집을 위한 사회조건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되지는 않는다. 이는 PCF 조직과 담론의 변화 또한 반영한다. 공산주의자들의 변화된 담론과 실천을 재검토하는 것은 PCF의 위기를 ‘노동계급 소멸’의 정치적 반영이라고만 보는 기계적 관점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인민계급과 공산주의의 관계에서 공산주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한 위기다. 이 위기는 실제적으로 공산주의체제, 담론과 실천, 1970년대부터 추진해온 연정참여 등에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 반면 PCF의 쇠퇴는 노동계급의 탈객체화(탈계급화

23) 이로부터 1980년대 이래 공산주의 시 공무원들에게 비공개적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고, 여러 공산주의 행동가집단끼리 대립하는 몇몇 사회갈등이 나온다. 『정당들과 프랑스정당시스템』 (Science-Po 출판부, 2007) 61-101쪽의 J. Mischi의 「PCF 쇠퇴의 사회적 역사를 위하여」 참조. 쟈느빌리에 지역에서 실시한 올리비에 마스클레 조사 또한 PCF 행동가들의 점진적인 거리두기에 의해 인민계급 출신 젊은이들과의 단절을 다룬다 : 『좌파와 공동(빈민) 주거지역. 놓쳐버린 만남에 대한 조사』 (La Dispute, 2003).

24) 이 과정은 PCF에 고유한 것이 아니다. PS(프랑스 사회당)의 사례를 보자면, F. Sawicki & R. Lefebvre, 『사회주의자들의 사회. 오늘날의 PS』 (Croquant 출판사, 2006), R. Lefebvre, 「프랑스 사회주의와 ‘노동계급」, Nouvelles Fondations 2006년 3월호, 64-75쪽. 좌파 정당들과 인민계급의 관계 변화의 종합적 진술에 대해서는, H. Rey의 『좌파와 인민계급. 불화의 역사와 현실』 (La découverte, 2004)을 볼 것.

25) J. Mischi, 「PCF의 정체성 재구성 : 당의 현대화와 당원의 비정치화(혹은 정치적 무관심)」, 『공산주의』 2003년 72-73호, 71-99쪽.

에 따른 다양화, 주관화)에 기여하며, 노동자집단대표와 프랑스정계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는 일에 가담한다. 당 조직이 정계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 능력을 잃고 공적 토론은 특히 지배자와 전문가의 관심사를 반영한 ‘문제’ (‘이민’, ‘소외계층(주변인)’ 등)로 모아지게 된다.

## - 토론녹취록 -

## PCF(프랑스공산당)과 인민계급

발표 : 줄리앙 미시(Julian Misch) 파리고등정치대학(Science Po) 전임교수

토론 : 김장민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한호석 미주 통일학연구소 소장

사회 : 김민재 2009파리국제정책포럼 정책팀장

**김민재** : 바로 김장민연구위원의 토론에 들어가겠다.

**“전체 계급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확보가 계급정당 성장발전의 결정적 요인”**

**김장민** : 발제 잘 들었다. 먼저 의견을 먼저 말하면, 지도부나 당원의 육체노동자 비율이 계급정당의 성장발전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보다 계급정당이 계급의 대표자로 구성돼있는가 혹은 전체 계급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계급을 대표하는 문제는 사회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된 여러 계층을 포괄하고 있는가 여부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당과 노동조직의 관계를 상징하는 인물이 있다. 권영길의원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대위원장이자 민주노동당 초대당대표이다. 하지만 그는 육체노동자가 아니라 언론노동자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아직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무원노조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반면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비정규직, 판매직노동자를 민주노동당이 다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나는 자본주의 변화에 따라 등장한 노동계층인 비정규직노동자, 판매직노동자, 공공서비스노동자가 다양한 부분에서 노동조합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계급정당이 이들을 포괄할 때 비로소 계급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발제자의 견해, 즉 프랑스공산당의 발전과 쇠퇴 과정에서 육체노동자를 중심으로 보는 것은 일면적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 계급정당이 전체계급에 대해 정치력을 발휘하는 문제는 일단 계급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때를 전제로 한다. 계급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정당이 계급에 대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조건은 사상적 일치성, 일관된 강령,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본다. 특히 반대계급과의 이데올로기투쟁에서 승리하여 자신의 계급뿐 아니라 중도계층의 지지까지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공산당의 반파쇼인민전선과 레지스탕스운동은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계급을 전제로 하면서도 다양한 계층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민주주의와 민족문제를 흡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냉전시기에는 시기적절한 탄력적 입장을 견지하지 못했다. 소련공산당과의 문제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공산당은 냉전이데올로기투쟁에서 패배했고, 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일정부분 고립됐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 역시 코리아반도의 분단구조와 분단이데올로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일정부분 고립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계급정당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요인은 정당의 지도부가 계급의 대표자로 구성되어있는가 또는 전체 계급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본다. 프랑스공산당의 발전과 쇠퇴도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를 설명 바란다.

### “전통적 의미의 노동계급에 대한 재정의 필요”

**미시** : 질문에 감사하다. 먼저 노동운동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인 계급문제를 의식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 그래야만 노동계급을 정치의 전면으로 이끌 수 있다. 이데올로기문제의 경우 사회정치적 과급력을 고려해 볼 때, 말로만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프랑스공산당 지도자들을 예로 들겠다. 현재 프랑스공산당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한 상징성을 가진다. 바로 노동계급출신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정당의 지도부가 부르주아지로 구성된 현실에서 더욱 차별성을 갖는다. 한마디로 프랑스공산당에서 일한다는 것 그 자체가 출신계급의 요구이다.

다양하게 분화된 노동계급의 여러 계층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은 좋은 의견이다. 하지만 실제 이미 다른 여러 정당들이 여러형식으로 그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해 나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통적 의미의 노동계급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통적 의미의 노동계급은 이미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대중계급이라고 칭하는 게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들은 전체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굉장히 여러계층으로 분화돼 있다. 이 안에서 실제적으로 노동자의 세계는 존재하지만 노동계급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유럽에서 노동운동이 쇠약해진 이유는 노동운동의 주도계급이 실제 노동자계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교사가 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나는 이것이 유럽노동운동 쇠락의 한 원인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노동계급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들도 노동계급을 대표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노동계급의 이해와 요구는 실제 노동자계급이 대변하는 편이 더 옳다고 본다.

### “노동계급의 동질성은 생산노동양식이 아니라 생산수단소유여부에서 찾아야”

**한호석** : 오늘 토론의 핵심주제는 ‘왜 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계급의 정당에 참여하지 않는가?’이다. 이것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만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노동당, 프랑스공산당도 똑같이 겪고 있는 고민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미시교수는 생산노동양식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생산노동양식의 출현으로 인해 전문직노동, 기술직노동, 사무직노동 같은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전체 노동계급에서 상당한 숫자와 지위를 차지하게 됐고, 거기서부터 노동자와 계급정당간의 괴리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소 김장민연구위원이 정치적 관점에서 설명했다면, 나는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설명하겠다. 나 역시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수적이고,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공장노동자들은 전투적일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만은 않았다. 민주노동당의 활동경험뿐 아니라 지난 20여년간 한국사회의 민주노동운동이 보여준 모습이 이를 잘 증명한다. 노동자가 육체노동에 종사하느냐, 정신노동에 종사하느냐가 그 노동자의 계급의식, 정치적 진보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생산노동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 노동자가 진보적이나 보수적이나를 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미시교수의 견해는 새로운 노동양식의 등장으로 노동계급이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노동계급의 계급적 동질성이 깨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노동계급의 정당 역시 침체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동질성은 생산노동양식에서 찾기보다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생산노동

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계급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동질성은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며 아무리 생산수단양식이 바뀐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동질성이 있는 것이다. 계급적 동질성이 깨졌다고 하는 고정관념도 우리가 깨야한다.

아무리 가난한 농민이라도 소작농이 아닌 이상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다. 반면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 노동자는 농민의 소득에 비해 몇배나 되는 봉급을 받는다 해도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이것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계급인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계급인가를 기준으로 계급의 동질성 문제를 구분해야지 소득격차를 가지고 구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노동계급의 정당은 전체 근로대중의 운명을 책임진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핵심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각도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 노동조합은 어디까지나 노동계급 자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계급의 정당은 노동계급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계급의 정당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조합에는 가입하면서 노동계급의 정당에는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이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인해 비롯된다. 노동계급의 정당이 전체 근로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정당이라는 의식을 갖지 못했거나, 혹은 노동자 자신이 자본가계급을 뺀 나머지 전체 근로대중의 운명을 책임졌다고 하는 자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이렇게 접근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노동계급의 정당이 전체 근로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자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이것을 앞서 김장민연구위원은 이렇게 표현했다. ‘반제투쟁에 노동계급의 정당이 앞장섰을 때, 다시 말해 프랑공산당이 전체 프랑스 근로대중의 운명을 책임지는 모습을 헌신적으로 보였을 때 전체 근로대중이 따라오더라 하는 것이다. 전적으로 옳은 견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과 관점에서 오늘 제기한 핵심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럼 전체 근로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계급정당으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은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문제이다. 구체적인 정치강령으로 표현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각 나라 사정에 따라 다를 것이다.

먼저 한국의 경우를 이야기 해보겠다. 한국은 제국주의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했고 지금도 계속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정당이라면 반제투쟁, 구체적으로 반미자주화투쟁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치과업을 실행하는데 앞장서야 전체 근로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정치적 대표체로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다르다. 과거 일본과 비교하면 어느 나라가 더 악독한 제국주의국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프랑스 역시 질이 나쁜 제국주의국가였다. 그런 가해자국가였던 프랑스에서 프랑공산당이 반제투쟁을 전면화하는 것은 피해자인 한국에 비해 더욱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이는 자기조국을 배반해야 한다는 오래된 견해와도 일치한다. 프랑공산당이 반제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르주아계급이 만들어 놓은 조국이라는 추상적인 개념 즉, 그들이 만든 ‘우리민족’, ‘우리프랑스국민’이라는 잘못된 허상과 관념을 깨야 한다. 프랑공산당이 민족주의자를 배타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미시 :** 관심있게 경청했다. 노동계급의 의식수준이 많이 낮아졌다. 많은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이 없어졌다. 한 호석소장이 말한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의 구분 역시 노동계급이 분열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육체노동자, 정신노동자, 기술노동자뿐 아니라 더 분화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이민노동자, 여성노동자, 실직자까지도 노동계급으로 포함할 수 있다. 노동자와 실직자라도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좌파, 노동자를 위한 정당들은 이러한 노동계급의 분화에 반대하며 그 분화된 계층들의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

## “미래의 전망은 노동계급의 인텔리화”

**한호석** : 의미전달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내 논지의 핵심은 이렇다. 생산노동양식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육체노동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진보정당은 모든 노동계급을 힘들고 어려운 유해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현재 노동양식의 변화는 노동계급과 노동계급정당의 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계급이 발명한 컴퓨터와 같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계급 자체가 영원히 육체노동의 틀에 갇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미래의 전망은 모든 노동계급을 인텔리화 하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계급정당이 집권한다면 민주노조안에 공장 대학을 세워 노동계급이 높은 지식교양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인간해방으로 노동계급의 해방이 이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다.

‘노동계급의 인텔리화’라는 테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노동계급의 정당이 집권해야 한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것을 거론할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다. 농민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있는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급의 계급정당이라 할 수 없다.

약간 미래의 이야기를 당겨서 했지만 포괄적으로 오늘의 주제와 연관이 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미시교수는 육체노동을 고정불변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정당의 정체성을 해설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시** : 추가로 설명하면 노동계급이나 대중계급을 정의할 때 사회학적으로는 육체노동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사무직도 얼마든지 힘든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노동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두번째로 노동계급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느냐,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계급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육체노동 자체가 그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김민재** : 흥미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충분히 토론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바로 전에 미시가 설명한 것처럼 노동계급의 정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의 구분이다. 이런 기본적 관점에는 일치한 토론이었다. 모두들 수고하였다. 박수로서 마치도록 하겠다. <끝>